

병자호란 시기 청군의 강화도 작전 *

- 목격담과 조석 · 조류 추산 결과를 중심으로 한 전황의 재구성 -

구 범 진 **

1. 서론
2. 서로 엇갈리는 傳聞 기록
3. 이민구 · 조익의 현장 목격담 분석
4. 청군의 현장 목격담 분석
5. 서로 엇갈리는 목격담: 청군의 渡海 시각 문제
6. 당일 염하수로의 潮汐 · 潮流와 청군 渡海 전후 상황의 재구성

1. 서론

조선의 仁祖 14년이자 청의 崇德 원년이었던丙子年 십이월에 발발한丙子胡亂은, 이듬해인 인조 15년(청의 숭덕 2년) 정축년 정월 30일(그레고리력 1637년 2월 24일) 인조가 出城하여 三田渡에서 항복 의례를 거행함으로써 막을 내렸다.¹⁾ 당시 인조의 出城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강화도의 함락이었다. 청이 국왕의 出城을 終戰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정월 20일이었으나, 조선 조정의 입장에서는 국왕의 안전 보장을 확신할 수 없었기에 出城 요구를 도

*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정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 여러분께 감사한다. 아울러 해군사관학교 이민웅 교수의 인적 주선과 도움 말씀에도 감사한다.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1)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정월 30일; 『承政院日記』 55책, 인조 15년 정월 30일; 『清太宗實錄』 숭덕 2년 정월 30일. 이하 조선과 청의 실록 및 『承政院日記』 등은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http://www.history.go.kr>)의 원문 · 원본을 활용한다.

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월 26일 청군 쪽에서 나흘 전인 정월 22일에 강화도를 점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실한 증인·증거를 제시하며 통고하였다. 충격에 휩싸인 인조는 그날 저녁 청의 出城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단을 내렸고, 이튿날 이 사실을 청에 알렸다.²⁾

이처럼 丁丑年 정월 22일(1637년 2월 16일) 강화도의 함락은 병자호란의 향배를 결정지은 중대 사건이었다. 주지하다시피 강화도는 고려 시대 30년 對蒙 號戰의 기지였다. 조선 시대에도 강화도는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었다. 특히 17세기 초에는 누르하치 세력의 침략 시 왕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保障處로 선정되어 수비체제가 한층 강화되었다.³⁾ 실제로 丁卯胡亂(1627) 때 강화도가 보장처의 역할을 한 사실은 널리 알려진 대로이다.⁴⁾ 물론 이는 “金城湯池”, “天塹之險”이라고 불러도⁵⁾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강화도가 험준한 해안 지형과 넓고 깊은 갯벌로 둘러싸여 있어서 기병 위주의 북방 민족으로서는 접근조차 쉽지 않은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강화도가 병자호란 때에는 단 하루 만에 청군에게 점령되고 말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현재까지 학계는 물론 일반 대중에 널리 공유되어 온 통설은, 강화도의 조선지휘부, 특히 檢察使 金慶徵과 江都留守 張紳의 안일, 무능, 비겁 등 한심한 태태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⁶⁾ 그러나 근년 들어 한 연구가 김경징에게 패전의 책임을 묻는 통설에 異議를 제기하였다.⁷⁾ 이에 따르면, 오늘

2) 『仁祖實錄』 권34, 15년 정월 20일~27일: 『承政院日記』 55책, 인조 15년 정월 20일~27일: 南磯, 『南漢日記』(申海鎮 역주, 2012 『남한일기』, 보고사), 98-99면(국역).

3) 이민웅, 1995 「18세기 강화도 수비체제의 강화」 『한국사론』 34, 4-10면.

4) 정묘호란 당시 인조는 정묘년 정월 29일(1627년 3월 16일) 강화도로 入島하여 두 달 넘게 머물다가 사월 10일(5월 24일)에 出島하였다. 『仁祖實錄』 권15, 인조 5년 정월 29일: 권16, 사월 10일: 『承政院日記』 17책, 인조 5년 정월 29일, 사월 10일.

5) 조선의 문헌 사료에는 강화도를 “金城湯池”나 “天塹之險”, 혹은 비슷한 의미의 어구로 부른 사례가 빈출한다. 예컨대, 『光海君日記(正草本)』 권129, 광해군 10년 유월 21일: 『仁祖實錄』 권36, 인조 16년 사월 8일.

6) 통설의 이해를 가장 잘 정리했다고 할 수 있는 강화도 함락 과정의 서사로는 한명기, 2009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412-419면; 한명기, 2013 『(역사평설) 병자호란 2』, 푸른역사, 184-207면 참조.

7) 허태구 2011 「병자호란 강화도 함락의 원인과 책임자 처벌: 김경징 패전책임론의 재검토

날 강화도 함락 과정에 대한 역사적 이해의 사료적 근거는 기본적으로 羅萬甲의 『丙子錄』에 수록된 「記江都事」인데, 「記江都事」에 자세히 묘사된 김경징의 한심한 작태는 나만갑과 金塗(김경징의 父)의 악연을 고려할 때 곧이곧대로 신뢰할 수 없다. 사실 병자호란 당시 조선 조정은 김경징에게 강화도 수비의 군사적 책임을 맡기지 않았으며, 戰後의 김경징 처형 결정도 군사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윤리적 차원의 문제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화도 함락의 군사적 원인은 다른 무엇보다도 압도적인 전력 차이, 즉 청군이 병력과 무기(예컨대 홍이포)에서 현격한 우세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우월한 수군 전력에 의지하여 청군을 해상에서 저지한다는 것이 조선군의 구상이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징 패전 책임론의 사료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강화도 함락 과정의 진상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마땅한 견해이다.

그러나 교전 쌍방의 전력과 강화도 내 조선군의 배치 실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⁸⁾ 다른 무엇보다도 객관적으로 우월한 수전 능력을 바탕으로 청군을 해상에서 저지한다는 조선 수군의 구상이 당일 전장에서 무력화되어 버린 경위는 해명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주된 관심사로 삼고자 하는데, 이 문제의 규명을 위해서는 정축년 정월 22일 청군이 감행한 강화도 작전의 구체적 상황 전개에 관한 조선과 청의 주요 문헌 기록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종 문헌의 주요 기록을 대조·검토하여 허구나 왜곡 및 과장을 최대한 걷어내고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확정해 나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새삼 강조하는 것은 현재의 통설적 이해가 특정 기록의 ‘증언’, 그것도 곰곰이 따져 보면 결코 가벼이 신뢰할 수 없는 ‘증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 본문의 제2절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본격적인 고찰의 단초로 삼고자 한다. 현재의 통설적

를 중심으로』『진단학보』 113, 99-128면.

8) 이 글의 심사 과정에서 강화도 함락 당시 쌍방의 전력과 조선군의 배치 실태 등에 대한 보충 설명이 요청되었는데, 이를 문제에 대해서는 구범진, 2017 「병자호란 시기 강화도 함락 당시 조선군의 배치 상황과 청군의 전력」 『동양사학연구』 141의 논의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해가 특정 ‘벼전’의 事後 傳聞에 근거한 것이며 내용적으로 그와 상충되는 다른 ‘벼전’의 傳聞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할 것이다. 이어지는 제3절에서는 정축년 정월 22일 당시 갑곶의 상황에 대한 李敏求와 趙翼의 목격담을 중심으로 조선 측의 주요 기록을 대조·검토하여, 당일 청군의 도해 전후로부터 강화부성 도착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그려 보기로 한다. 제4절에서는 현장 목격담을 담은 전황 보고 등 청 측 기록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제3절의 고찰 결과를 대조·확인해 볼 것이다. 제5절에서는 청군의 渡海 시간대를 둘러싸고 조선 측과 청 측의 목격담 간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두 종류 목격담 중 어느 쪽을 더 신뢰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볼 것이다. 끝으로 제6절에서는 강화도 함락 당일 조선 수군의 기동에 중대 변수로 작용했던 조석·조류의 과학적 추산 결과를 활용하여 청군 도해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⁹⁾

2. 서로 엇갈리는 傳聞 기록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통설적 이해는 특정 기록의 ‘증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기록’이란 다름 아닌 나만갑의 『丙子錄』에 실린 「記江都事」이다. 나만갑의 『丙子錄』은 이미 조선 후기부터 널리 유포되어 『燃藜室記述』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도 轉載되었거나와 오늘날에도 병자호란의 비극적인 역사 서사 구성에 뼈대를 제공하고 있다. 종래의 김경징 책임론뿐만 아니라 강화도 함락의 전체 과정에 대한 이해 역시 주로 『丙子錄』의 「記江都事」에 근거하고 있다. 예컨대 청군 渡海 당시의 상황에 대한 통설의 이해는 「記江都事」의 다음과 같은 묘사를 근간으로 삼고 있다.

9) 이 글의 제6절에서 소개·활용하는 조석·조류 추산 결과는 변도성·김효원·구범진, 2017 「병자호란 시기 강화도 함락 당일 염하수로의 조석과 조류 추산」 『한국과학사학회지』 39-3에 근거한 것이다. 참고로, 변도성 등의 논문에서는 조석·조류의 추산 자체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관련 문헌 사료의 분석·검토는 최소화하였지만, 논지 전개상 필수 불가결한 사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의 서술 내용과 어느 정도 중복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밝혀 둔다.

(가) 留守 張紳은 舟師大將으로서 갑작스레 廣津의 戰船을 출발시켜 갑곶을 항해 거슬러 올라왔다. 그러나 때가 마침 下弦이라 潮水가 매우 적어서 밤을 새워 배를 저었으나 22일 새벽녘에야 겨우 갑곶 아래로부터 5리쯤 떨어진 곳까지 이르렀다. 姜晉昕은 배 7척을 거느리고 갑곶에 머물면서 賊과 힘을 다해 싸웠다. 賊의 배가 제법 많이 침몰하였지만, 姜晉昕의 배도 대포에 맞아 수십 군데 구멍이 났고 죽은 군사가 수십 명이었다. 姜晉昕은 몸에 賊의 화살을 맞았다. 그러나 빼앗은 적의 활과 화살이며 그 밖의 무기 또한 많았다. 姜晉昕은 거느린 배가 매우 적었다. (반면에 배가 많았던) 張紳의 경우는 賊의 기세가 매우 盛하고 急한 것을 보고는 전진할 마음이 없었다. 姜晉昕이 북을 치고 깃발을 휘둘러 張紳을 독촉하였지만 張紳은 끝내 전진하지 않았다. 姜晉昕이 배 위에서 외쳐 말하기를, “네가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받고서 어찌 차마 이처럼 할 수 있느냐? 내가 장차 너의 목을 벨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張紳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고, 이내 조류를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¹⁰⁾

張紳은 당시 江華留守이자 舟師大將으로 강화도 수비의 책임자였으며, 조선 수군의 주력 함대를 이끌고 廣城에 주둔하여 鹽河水路 (=江華海峽)의 남쪽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忠淸水使였던 姜晉昕은 염하수로 북쪽 입구에 위치한 燕尾亭을 맡고 있었다.¹¹⁾ (가)에 따르자면, 張紳은 새벽 밀물 시간에 조류를 타고 염하수로를 북상하였다. 정월 22일은 下弦 무렵으로 조수 간만의 차가 작은 날이었다. 이로 인해 염하수로의 수심이 얕아 張紳 함대의 큰 戰船들은 항해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들이 간신히 갑곶 수역으로부터 5리쯤 떨어진 지점에 도달한 무렵, 갑곶 앞 해상에서는 姜晉昕의 전선 7척이 청군을 상대로 고군분투 중이었다. 그러나 張紳은 “賊의 기세가 매우 盛하고 急한 것을 보고는” 갑곶 앞 수역으로 접근할 마음을 버렸다. 姜晉昕이 큰소리로 꾸짖으며 전진을 독촉했으나 張紳은 말을 듣지 않았고, “이내 조류를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 조류의 방향이 바뀌자 뱃머리를 돌려 남쪽으로 도망쳤다는 말이다.

10) 申海鎮 편역, 2012 『17세기 호란과 강화도』, 역락, 174면의 「記江都事」 한문 원문을 우리 말로 옮긴 것이다. 『丙子錄』은 사본에 따라 글자에 출입이 있는데, 申海鎮 편역서의 「記江都事」는 『昭代粹言』 권9 수록의 선본을 저본으로 한 것이다. 한편, 같은 책, 162-163면에 申海鎮의 국역이 있으나 그대로 전재하지는 않았다. 이하 모든 사료 원문의 번역은 오역의 담습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 국역을 그대로 전재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11)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정월 22일.

지금까지는 「記江都事」의 전황 묘사를 아무런 의심없이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수레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작았던¹²⁾ 청군의 배가 압도적으로 큰 조선 수군의 戰船들과 해상에서 정면승부를 감행하였다는 것부터 의심스럽다. 조선의 판옥선에 撞破(=衝破)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또 강진흔의 배가 “대포에 맞아 수십 군데 구멍”이 뚫렸다고 하는데, 홍이포로 쏜 포탄을 한두 발도 아니고 수십 발 맞고도 싸움을 계속 벌여 청군의 활과 화살 및 무기를 다수 빼앗았다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게다가 姜晉昕이 대포 소리가 진동하는 해상에서 무려 “5리”(2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던 張紳을 이렇게 꾸짖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三國志演義』에나 등장할 법한 소설적 장면이다.¹³⁾

그러나 사료적 측면에서 「記江都事」의 가장 큰 결함은 다른 데에 있다. 정축년 정월 22일 나만갑은 강화도가 아니라 남한산성에 있었다. 「記江都事」는 목격담이 아니라 事後의 傳聞인 것이다. 사실과는 거리가 면 허구·과장이 뒤섞이기 마련인 것이 事後 傳聞이다. 물론 모든 내용을 허구로 치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건의 역사적 재구성을 事後 傳聞에만 의존해서는 곤란하다. 더구나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 기록이 존재한다면 더더욱 곤란하다. 한 가지 예로 南磯의 『南漢日記』를 들 수 있다. 『남한일기』에서 남금은 일기체 기록을 끝낸 뒤에 강화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기록을 부록처럼 실었는데,¹⁴⁾ 그 내용은 나만갑의 「記江都事」와 별 차이가 없는, 말하자면 같은 ‘벼전’의 사후 전문

12)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정월 22일.

13) 「記江都事」의 말미에서도 姜晉昕은 억울한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의연함을 잃지 않는 영웅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강진흔에 대한 나만갑의 서사는 이미 조선 후기부터 여러 사찬 문헌에 전재되었고, 그에 따라 오늘날에도 널리 유포되어 있다. 그러나 나만갑의 서사는 사실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토록 우호적인 서사가 나만갑과 강진흔 간의 개인적인 특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사료상 알 수 없다. 그런데 나만갑은 종전 직후 노모를 모시고 충청도 瑞山으로 갔다가 거기서 노모의 장사를 치렀는데, 얼마 뒤 청군이 재侵한다는 헛소문을 듣고 피난을 위해 충청 수영의 배를 빌렸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그만 사달이 나서 官船을 불법 매입한 죄로 경상도 寧海로 유배되었다[金尙憲, 『淸陰集』(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권28, 「刑曹參議羅公萬甲神道碑銘」; 『仁祖實錄』 권35, 인조 15년 십이월 4일]. 이러한 행적으로부터 추측하건대, 나만갑은 충청 수군 내부에 돌고 있던 ‘벼전’의 서사를 무비판적으로 채록한 것 같다.

14) 南磯, 『南漢日記』, 169-181면.

이다. 그러나 남급의 『남한일기』에는 「江都錄」이라는 제목이 달린 전혀 다른 ‘벼전’의 기록도 실려 있다.¹⁵⁾ 이 「江都錄」은 정월 22일 오전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다.

(나) 다음날[정월 22일: 인용자] 아침 해가 三丈쯤 (喟을 때) 後軍이 느릿느릿 성을 나갔다. (중략) 賊兵이 맞은편에 모여 진을 치고 紅夷大炮를 어지러이 쏘아대니 천둥 같은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대포에 맞아) 부서지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었다. 사람들은 감히 가까이 가는 자가 없었다. (중략) 賊은者皮船 몇 척에 수십여 명을 싣고 바다 가운데에 둉뚱 떠 있었다. (중략) 얼마 되지 않아 賊의 배가 갑자기 전진해 왔는데, 한 손으로는 방패를 들고 한 손으로는 노를 저었다. 그때 留守 張紳은 舟師大將으로서 舟師를 이끌고 廣城으로부터 새벽 조수를 타고 올라왔으나, 갑곶에 한 馬場 미치지 못했을 때 조수가 매우 빠르게 물러갔기 때문에 전선을 움직일 수 없었다. 장신은 배 위에 앉아 가슴을 칠 때로이었다. 충청수사 姜晉昕은 燕尾亭으로부터 舟師를 이끌고 왔으나 賊의 炮에 격퇴되어 전진하지 못하였다.¹⁶⁾

(가)에서 갑곶 앞 해상의 전투 상황은 문맥상 새벽 시간의 일이었지만, (나)의 「江都錄」은 강화부성의 군사들이 성을 나선 시간이 “아침 해가 삼장쯤” 떴을 때(보통 오전 8~9시를 지칭)였다고 말한다. 강화부성에서 갑곶까지는 오늘날의 도로 기준으로 대략 4킬로미터, 즉 도보로 한 시간 거리이므로, (나)는 대략 오전 9~10시 이후의 갑곶 현장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江都錄」에 따르면, 청군이 염하수로를 건널 당시 장신과 강진흔의 함대는 모두 그들을 저지할 수 있는 지점에 있지 않았다. 강진흔의 함대는 청군의 홍이포에 격퇴되어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다.¹⁷⁾ 장신 함대의 경우는, 새벽 조수를 타고 북상하였다는

15) 南磯, 위의 책, 201-231면. 「江都錄」을 남급의 저술로 보는 테에는 異見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申海鎮의 주장(같은 책, 284-287면)을 쫓아 남급의 저술로 간주한다. 어차피 사후 전문을 채록한 것이므로 남급의 저술 여부는 이 글의 맥락에서 중요하지 않다.

16) 南磯, 위의 책, 224-226면의 한문 원문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같은 책, 207-210면에 申海鎮의 국역이 있으나 그대로 전재하지는 않았다. 申海鎮은 “張紳 (중략) 領舟師自廣城乘曉潮上來”를 “장신은 (중략) 수군을 이끌고 광성에서 새벽을 틈타 조수 따라 왔는데”로 번역하였다. 원문을 “張紳 (중략) 領舟師, 自廣城乘曉, 潮上來”로 읽었기 때문인데, “張紳 (중략) 領舟師, 自廣城, 乘曉潮上來”로 끊어 읽어야 한다. 이 글의 맥락에서 중요한 오역이기에 특별히 언급해 둔다.

것까지는 나만갑의 기록과 다르지 않지만, 갑곶까지 “한 마장”(약 400미터) 정도를 남겨두고 그만 조수의 방향이 바뀌는 바람에 전선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江都錄」에 따르자면, 「記江都事」와는 정반대로, 비겁한 장수는 장신이 아니라 오히려 강진흔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남급도 정월 22일 당시 남한산성에 있었기로는 나만갑과 다름이 없다. 그의 「江都錄」은 나만갑의 「記江都事」와는 ‘벼전’을 달리할지언정 事後 傳聞이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벼전’에 따라 사후 전문의 ‘증언’이 이처럼 크게 엇갈리고 있다면, 다른 기록을 검토하여 두 ‘벼전’의 진위를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월 22일 당시 갑곶의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기록을 찾아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기록이 남아 있다(후술). 다만 목격담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실만 이야기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다른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3. 이민구·조익의 현장 목격담 분석

몇몇 문헌에서 발견되는 현장 목격담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서술의 편의상 먼저 『仁祖實錄』의 정축년 정월 22일 기사에 묘사된 강화도 함락의 전말에 주목해보자.

(다) ① 오랑캐가 군사를 나누어 江都를 침범하겠다고 떠들었다. 당시 유빙[冰澌: 성옛장]이 강에 가득하였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허풍이라고 여겼으며, 諸路의 舟師를 징발하여 留守 張紳에게 통솔하도록 명하였다. 忠淸水使 姜晉昕이 배를 이끌고 먼저 이르러 燕尾亭을 지켰다. 張紳은 廣成津에서 배를 정비하였으나 裝備를 미쳐 다 신지 못하였다. ② 오랑캐 장수 九王이 諸營에서 군사를 뽑아 3만 명이라고 일컫고, 수레로 三板船 수십 척을 실어 甲串津으로 나아가 진을 치고는 紅夷砲를 잇따라 쏘았다. (조선의) 수군과 육군이 허둥지

17) 역시 事後의 傳聞이기는 하지만, 『大東野乘』에 수록된 작자 미상의 「逸史記聞」(한국고전 종합DB)도 정축년 정월 22일조에서 함대의 맨 앞에 있던 兵船이 대포에 맞자 姜晉昕이 겁을 먹고는 감히 싸우려 들지 못하였다고 말한다.

등하며 감히 접근하지 못하자, 賊이 빈틈을 타고 급히 (염하수로를) 건넜다. 張紳, 姜晉昕, 金慶徵, 李敏求 등은 모두 멀리서 바라보다가 도망쳤다. ③ 將官 具元一이 張紳을 목 베고 군사를 몰아 육지에 상륙하여 決戰하고자 하였으나, 張紳이 (미리) 알아채고 막았다. 具元一은 痛哭하여 바다에 몸을 던져 죽었다. ④ 中軍 黃善身은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룻가 뒷산에 있었는데 賊을 만나자 군사가 무너져 죽었다. ⑤ 賊이 성 밖 높은 언덕에 나누어 주둔하였다. (중략) 大君[鳳林大君: 인용자]이 용사를 모집하여 출격하였으나 대적할 수 없어 혹은 죽고 혹은 부상을 입고 돌아왔다. ⑥ 얼마 뒤 大兵이 성을 포위하였다. (중략) 날이 저물 무렵, 大君과 오랑캐 王이 나란히 말을 타고 성에 들어왔고, (청군의) 병사들은 성 밖에 머물게 하였다. (중략) (오랑캐 왕은) 大君에게는 行在로 (보낼) 편지를 쓰도록 요청하고, 宰臣에게는 장계를 쓰게 하였다. (후략)¹⁸⁾ [원문자는 인용자]

(다)의 내용을 세분하여 살펴보자면, 먼저 ①에서는 강물이 아직 풀리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청군의 상륙 작전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한 다음, 강진흔과 장신이 각각 연미정과 광성진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②에서는 청군 渡海 당시 갑곶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나만갑이 「記江都事」에서 묘사한 바와 같은 강진흔의 奮戰 장면은 여기에 없다. 강진흔 역시 “멀리서 바라보다가 도망”친 자로 꼽히고 있을 뿐이다. 반면에 남급의 「江都錄」과는 내용상 배치되지 않는 묘사이다. ③은 지금까지 살핀 기록에는 없었던 것으로, 張紳 함대의 병력이 육지에 상륙하여 청군에 결사항전 할 수도 있었으나, 張紳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④에서는 中軍 黃善身이 갑곶에 상륙한 청군과 싸우다가 패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⑤에서는 청군이 강화부성 바깥에 진을 친 가운데 봉립대군이 용사를 모아 싸우고자 하였으나, 청군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⑥에서는 청군의 강화부성 입성이 협상에 의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전하고 있다. 말미에 등장하는 大君의 서신과 宰臣의 장계는 정월 26일 청군이 남한산성의 조선 조정에 제시한 강화도 함락의 ‘증거’였다.¹⁹⁾

『仁祖實錄』은 효종 1년(1650) 팔월부터 효종 4년(1653) 유월에 걸쳐 편찬되었

18)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정월 22일.

19)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정월 26일.

다. 위의 기사는 사건이 일어난 지 십 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뒤에 만들어진 기록인 것이다. 그 십 년 동안 여러 증언과 증거를 수집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을 재구성한 결과이자, 戰後 조선 조정의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이해를 집약한 기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량이 많지 않아 내용이 소략하며, 다른 기록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더러 있다. 이하에서는 현장 목격담을 중심으로 『仁祖 實錄』의 다른 기사나 『承政院日記』의 기사 등을 아울러 참조하면서, 조선 측 기록이 전하는 정월 22일 강화도 함락의 진상에 접근해 보기로 하겠다. 단, 청군의 ‘평화적’인 입성 과정(인용문의 ⑥ 부분)은 군사적 측면에 집중한다는 차원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정축년 정월 22일 갑곶 해상에서 벌어진 청군 渡海의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 중에는 副檢察使 李敏求와 禮曹判書 趙翼이 있었다. 두 사람이 남긴 기록은 傳聞이 아니라 목격담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민구와 조익의 기록을 차례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라) [이민구의 기록] (정월 22일) 黎明에 (갑곶 대안을 보니) 毛氈으로 만든 장막 대여섯 줄이 文殊山 아래에 있었고 곳곳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해가 巳時를 향할 (무렵) 賊이 大砲로 (해협의) 서쪽 해안을 연달아 때리자 흙과 돌이 무너지고 깨졌다. 작은 배 수십 척이 앞 바다에 등등 떠서 장차 건널 형세였다. 잠시 후 上[봉립대군을 지칭: 인용자]께서 오셨고, 相公 金尙容, 判書 李尙吉, 判書 趙翼, 同知 呂爾徵, 參議 畿省曾, 獻納 李一相, 典籍 李行進 등 십여 명이 이어서 도착하였다. 忠淸道의 戰船 7척은 급류 속에 뒷을 내리고 있어서 갑작스레 (배를) 제어할 수 없었다. 本府[강화부: 인용자]의 舟師 27척은 廣城으로부터 북상하였으나 조수가 물러가면서 (강 바닥에) 걸려 진진하지 못하였다. 이때 本府의 中軍 黃善身이 廣城으로부터 비로소 육군 113명을 이끌고 (왔는데) 갯벌에 (길이) 막혀 멀리 돌아서 오느라 겨우 봉우리에 올라 미처 布陣하지 못하였다. 賊船은 이미 中流를 지나고 있었다. 上께서 臣[이민구 본인을 지칭: 인용자]에게 “公은 여기에 남으라. 나는 추가로 군사를 모집하여 오겠다.”고 말하였다. 떠날 때 臣을 돌아보며 거듭해서 丁寧하게 하교하시고는 말에 올라 (강화)府로 돌아가셨다. 여러 宰臣들이 뒤따라 해산하였다. 나중에 들으니, 上께서 府中에 이르러 갑옷을 입고 병사를 모집하셨으나 남문에 이르러 賊을 만나자 (출격을) 멈추셨다고 한다.²⁰⁾

20) 李敏求, 『東州先生文集』(한국고전종합DB) 권1, 書「答鄭判書書(世規)」“及正月二十一

(마) [조익의 기록] (정월 22일) 이른 아침에 金慶徵이 병사를 이끌고 갑곶으로 나가기에, 나는 “나도 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중략) 성을 나와 1~2리쯤 갔을 때 炮聲이 진동하는 것을 들었다. 갑곶에 이를 무렵 주먹처럼 큰 砲丸이 잇따라 날아오자 사람들이 모두 사기를 잃었다. 갑곶의 언덕 위에 이르러서 바라보니, 나루의 동편[해협의 동쪽 기슭: 인용자]에 진을 친 적의 무리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고개 위에 진을 친 병사는 많은 것 같았다. (적의) 작은 배들은 마치 隅盤 같은 모양이었고, 그 중에 큰 배도 隅盤보다 조금 큰 정도였다. 깃발을 펼친 배가 나룻가에 떠 있었는데, 그 숫자는 겨우 30여 척 정도 될 만했다. 나루의 북쪽을 바라보니, 우리 戰船 4~5척이 정박해 있었다. 巳時쯤 되었을 때부터 板屋 大船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것이 보였는데, 그 숫자가 매우 많았다. 사람들이 모두 이는 필시 남쪽의 戰船이 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들 크게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 배들은 나루에 수백 보쯤 미치지 못한 채 모두 머물러 전진하지 않았다. 이는 곧 장신이 이끄는 京畿의 전선이었다. (중략) 午時쯤에 이르자 적의 배가 차례로 건너왔다. 검찰사 등이 언덕 위에서 깃발을 흔들며 (전진하라고) 舟師를 재촉하였으나 끝내 움직이지 않았다.²¹⁾

이민구·조익의 목격담을 중심에 두고 다른 사료의 기록을 아울러 참조해 가면서 중요한 문제 몇 가지를 하나씩 검토해 보기로 하자. 첫째는 장신 함대가 갑곶 앞 해상에 도달하지 못한 까닭이다. (마)에서 조익은 장신의 함대가 북상하다가 수백 보 못 미쳐 전진을 멈추었다는 사실만 언급하였으나, (라)에서 이민구는 조수가 밀물에서 썰물로 바뀌면서 수위가 내려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나)의 「강도록」도 장신의 함대가 “조수가 매우 빠르게 물러갔기 때문에 전선을 움직일 수 없었다.”라고 하여, 비록 그 효과는 이민구와 달리 해석하였지만 역시 조류의 변화를 장신 함대의 북상을 저지한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인조 역시 장신은 “조수가 물러나는 바람에 배를 제어할 수 없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²²⁾

日”부터 “後聞, 上至府中, 披甲募兵, 至南門遇賊而止云.”까지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하 『東州先生文集』의 「答鄭判書書(世規)」는 ‘李敏求, 「答鄭判書書」’로 약칭한다.

21) 趙翼, 『浦渚集』(한국고전종합DB) 권25, 雜著「丙丁記事」“早朝, 金慶徵率兵出往甲串”부터 “至午時許, 敵船相次渡來, 檢察等, 令於岸上揮旗, 促舟師, 而終不動.”까지를 옮긴 것이다. 이하 『浦渚集』의 「丙丁記事」는 ‘趙翼, 「丙丁記事」’로 약칭한다.

22)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이월 21일 “答曰, ‘金慶徵, 所領軍兵甚少. 張紳, 因潮退, 不能

둘째는 강진흔 함대의 동태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민구와 조익 모두 강진흔의 함대가 줄곧 정박 상태에 있었다고 말한다. (나)의 「강도록」은 강진흔이 “賊의 대포에 격퇴되어 전진하지 못하였다.”고 했다. 아예 뒷을 내리고 줄곧 정박해 있지는 않았다는 말이지만, 청군의 대포에 눌려 갑곶 앞 현장으로 남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반면에 나만갑의 기록에서 강진흔은 홀로 奮戰한 영웅의 모습이었다. 어느 쪽이 진실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

(다)의 『仁祖實錄』 정월 22일자 기사는 조선군이 “허둥지둥하며 감히 접근하지 못하자, 賊이 빙틈을 타고 급히 건넜다.”고 말하였다(② 부분). 이월 21일 대사헌 韓汝灝 등도 “賊의 보병 수십 명이 두 척의 작은 배를 타고 渡江하는데도 막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였다.²³⁾ 또한 “留守 張紳은 舟師를 이끌고 下流로 退去하였고 公清水使 姜晉昕은 배를 上流로 옮겼다. 敵船이 이미 출발하였으나 나룻길은 텅 비어 그들을 막는 자가 없었다.”는 기록도 있다.²⁴⁾ 『肅宗實錄』에도 “옛날 효종께서 일찍이 경연을 맡은 신하에게 정축년 江都에서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姜晉昕을 가리켜, 싸우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망도 치지 못했다고 하셨다.”는 기록이 보이는데,²⁵⁾ 봉립대군, 즉 훗날의 효종 역시 (라)에서 보았듯이 당시 현장의 목격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하건대, 姜晉昕의 함대가 청군의 渡海 전후 시간대에 갑곶 해상으로 남하하지 않았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한편, 강진흔 함대의 동태 문제 역시 장신 함대의 북상을 저지한 조류의 변화와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장신 함대가 조류 때문에 북상하지 못하였다 면, 북쪽에 있던 강진흔 함대는 반대로 조류의 흐름을 타고 남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축년 이월 16일 어전의 대화에서 “(장신 등이) 조수가 물려난 까닭에 서로 구원할 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만, 만약

制船云。依律處置。似或過矣。”

23)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이월 21일 “步賊數十, 乘二箇小船渡江, 而無一人防禁者。”

24) 『承政院日記』 61책, 인조 15년 십일월 2일 “留守張紳, 領舟師退去下流, 公清水使姜晉昕, 移船上流. 敵船已發, 而津路一空, 無有禦之者。”

25) 『肅宗實錄』 권15, 숙종 10년 삼월 13일 “昔孝廟, 詈與筵臣, 言丁丑江都事, 謂姜晉昕既不能戰, 又不能逃。”

조수가 물러났다면 (강진흔은) 어떻게 연미정으로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²⁶⁾ 또한 일단 유배형에 처해졌던 강진흔을 조정에서 재차 소환한 것은 “조수의 흐름을 타고도 내려오지 않은 죄(順潮不下之罪)” 때문이었다.²⁷⁾ 강진흔은 출곧 갑곶 북쪽의 해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청군의 도해 당시 그들을 저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류의 방향이 바뀐 뒤에는 조류를 타고 남하하면 염하수로를 건너고 있던 청군을 공격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강진흔은 왜 남하하지 않았을까? 「강도록」은 강진흔이 “賊의 대포에 격퇴되어 전진하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전후 강진흔과 함께 처형된 충청수사의 虞候 邊以惕의 죄목은 “戰船을 이끌고 갑곶의 상류에 있다가 포성을 듣고 무너져 달아난” 죄였다.²⁸⁾ 청군의 홍이포에 격퇴되어 청군의 도해 현장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강진흔 함대는 실제로 청군의 홍이포에 피격된 적이 있을까?

여기서 “姜晉昕이 탔던 戰船이 포탄에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 그리고 軍卒이 얼마나 죽고 다쳤는지를, 충청도에서 신속히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라.”는 『承政院日記』의 기사가 눈길을 끈다.²⁹⁾ 강진흔은 자신의 배가 청군의 포탄에 맞았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자기변호를 시도한 것 같다. 조사 결과를 담은 충청도의 보고는 발견되지 않지만, 청군의 대포에 맞았다는 강진흔의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그 근거로는 먼저 강진흔이 이미 처형된 뒤인 정축년 십이월에 司憲府가 전쟁 당시 結城縣監으로 충청 舟師에 합류하여 참전했던 鄭亨道를 탄핵하면서, 그가 강진흔의 戰船이 포탄에 맞았는데도 구하려 가지 않았다고 비난한 사실을 들 수 있다.³⁰⁾ 또 하나의 근거는 장성덕(張成德: Jang Ceng De)이 “강화

26) 『承政院日記』 56책, 인조 15년 이월 16일 “聖求曰, ‘聞潮退, 故不能相救云。若潮退, 則何能避於燕尾亭乎?’”

27) 『承政院日記』 58책, 인조 15년 유월 1일, 유월 4일: 『仁祖實錄』 권35, 15년 유월 4일.

28)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삼월 6일 “公清虞候邊以惕, 領戰船在甲串上流, 聞砲聲奔潰.”: 권35, 인조 15년 구월 21일 “始賜金慶徵死, 斬姜晉昕, 邊以惕.”

29) 『承政院日記』 59책, 인조 15년 칠월 14일 “姜晉昕所乘戰船中丸與否, 及軍卒死傷多少, 令本道急速明查啓聞.”

도를 칠 때 紅衣礮[=紅夷砲: 인용자]로 敵船을 擊敗시켰고 그 큰 군기[纛]를 부러트렸다.”는 청 측의 논공행상 기록이다.³¹⁾ 이는 청군의 홍이포가 조선 수군 지휘관의 전선에 명중하였다는 의미이다.

강진흔의 배가 포탄에 맞았다는 것도 사실이고, 동시에 그의 함대가 남하하여 청군의 도해를 막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라면, 강진흔은 청군이 도해를 개시하기 전에 이미 홍이포에 맞았던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갑곶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홍이포에 맞을 수 있었을까?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홍이포의 유효 사거리는 약 2.8킬로미터, 최대 사거리는 약 9킬로미터나 되었기 때문이다.³²⁾ 강진흔의 배는 갑곶 북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더라도 얼마든지 청군의 홍이포에 피격될 수 있었던 것이다.³³⁾

셋째는 조류의 변화 시점에 대한 것이다. (라)에서 이민구는 “해가 巳時를 航할 (무렵)”, 즉 그가 가늠하기에 巳時가 되기 얼마 전 청군이 갑곶을 향해 대포를 쏘았고, 곧이어 봉립대군과 조익 등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말하였다. 이어지는 묘사에서 이민구는 시간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조익의 목격담 (마)를 보면, 갑곶에 도착하자마자 목도한 갑곶 대안의 상황과 북쪽 해상에 정박 중이던 강진흔 함대의 모습을 언급하고나서, 그가 가늠하기에 “巳時쯤 되었을 때”부터 시야에 들어온 장신 함대의 동태를 묘사하고 있다. 두 사람의 기록을 종합하면, 시간이 사시에 들어가기 조금 전 청군이 갑곶을 향해 홍이포를 쏘는 가운데 봉립대군 일행이 갑곶에 도착하였고, 사시에 들어갔을 무렵 장신 함대가 갑곶에 있던

30) 『仁祖實錄』 권35, 인조 15년 십이월 5일 “憲府啓曰, ‘前縣監鄭亨道, 曾爲結城縣監時, 領舟師赴難, 坐見姜晉昕戰船中丸, 而莫之救.’”

31) 『清太宗實錄』 권37, 숭덕 2년 칠월 17일 “增張成德敕辭曰, ‘(중략) 又平定朝鮮時, 攻江華島, 用紅衣礮, 擊敗敵船, 折其纛. (중략) 合前紀錄, 由牛衆章京, 陞爲三等甲喇章京, 准再襲二次.’”

32) 허태구, 앞의 논문, 111면.

33) 청군이 멀리 떨어져 있던 강진흔의 함대를 대포로 조준할 만한 시야를 확보하고 있었겠느냐는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으나, 당일 청군이 文殊山을 점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그 위에 올라가면 江都의 형세는 훤히 보지 못할 곳이 없다.”(『肅宗實錄』 권52, 숙종 38년 십일월 5일 “文殊山城在津路要害, 登其上, 則江都形勢, 無不洞見”)는 말은 숙종 대에 이르러 산성이 축조된 문수산의 군사적 가치를 잘 요약하고 있다.

사람들의 가시거리 안으로 들어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 갑곶 북쪽의 강진흔 함대는 사시 전후 줄곧 정박 중이었다.

조익의 기록에서 사시 초 가시거리에 들어온 장신의 함대는 갑곶으로부터 수백 보 거리에 이르러 전진을 멈추었고, 이민구는 그 원인을 조수가 물려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장신의 함대가 갑곶 언덕에 있던 조익의 가시거리에 들어온 때부터 수백 보 거리로 북상하기까지는 시간이 꽤나 흘렀을 터이지만, 두 사람의 목격담으로부터 조류의 방향이 바뀐 정확한 시각은 알 수 없다. 단지 당일 염하수로의 潮汐이 巳時, 즉 오늘날의 東經 135도 표준시(UTC+9)로 9시 30분~11시 30분에 해당하는³⁴⁾ 시간대에 밀물에서 썰물로 바뀌었다는 것만 알 수 있다.

넷째는 청군의 渡海 개시 시각에 관한 것이다. 이민구는 그 시각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조익은 청군의 배들이 “오시쯤[午時許]”, 즉 오시에 가까워지고 있던 어느 시점에 염하수로를 건너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옛 사람들은 해의 위치만으로도 시간을 가늠하는 데 익숙하였을 터이지만, 어느 정도 오차가 나는 것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차를 감안하여, 조익의 “오시쯤”은 11시~11시 30분의 시간대로 추정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민구의 경우 (라)의 인용문에 이어지는 서술에서, 청군이 갑곶에 상륙하여 한 차례 교전을 치르고는 곧바로 강화부성으로 몰려갔고, 자신은 강화부성으로 복귀하려고 했다가 청군이 이미 성 밖에 모여 있는 것을 멀리서 보고는 결국 “해가 正午를 지났을 [日過午]” 때 작은 배로 강화도를 탈출하였다고 말하였다.³⁵⁾ 두 사람의 기록을 종합하면, 11시~11시 30분의 어느 시점에 도해를 개시한 청군은 이내 갑곶을 장악하였고, 늦어도 정오(12시 30분) 무렵까지는 강화부성에 도달해 있었다는

34) 사시는 보통 9시~11시의 시간대와 동일시된다. 그러나 표준시(UTC+9)는 東經 135도의 시간이고, 강화도 갑곶의 위치는 東經 126도 31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갑곶 현지의 자연시간은 도쿄 표준시와 약 34분의 시차가 난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시차를 30분으로 간주하겠다.

35) 李敏求, 「答鄭判書書」“須臾岸上空無賊, 遙見城外, 賊騎馳驟, 擄殺人物. 僕只與偏裨以下六人, 倉卒欲還府內, 則大勢橫截, 流血成渠. (중략) 日過午, 忽見小舟如席大, 自府南古束浦, 繚轉而下. 一童持楫, 得寄載, 以達海船. 萬死間關, 苛保至今.” 원문의 “日過午”를 “해가 正午를 지났을 때”로 번역한 이유는 후술 내용 참조.

이야기가 된다.

청군이 정오가 되기 전에 강화부성에 도착했다는 것은 다른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라)에서 이민구는 “賊의 배가 이미 중류를 지났을” 때 봉립대군이 말을 타고 강화부성으로 떠났다고 하였는데, 당시 봉립대군과 함께 성으로 돌아온 金尙容은 남문에서 폭사하여 자결하였다.³⁶⁾ 金尙容의 아들 金光煥이 편찬한 『金議政江都丁丑錄』을 보면, 김상용의 자결 전에 청군은 이미 강화부성 바깥에 도착해 있었다는 여러 사람의 증언이 남아 있다.³⁷⁾ 따라서 청군의 강화부성 도착 시간은 김상용의 자결 시간에 선행한다. 김상용의 자결 시간과 관련하여, 『仁祖實錄』은 예조의 보고를 통해 “그날 오시”에 폭발음을 들었다는 懷恩君 李德仁과 珍原君 李世完의 진술을 인용하고 있다.³⁸⁾ 그런데 『金議政江都丁丑錄』 정축년 십일월 9일조를 보면 두 사람의 진술을 담은 예조 보고의 원문이 실려 있으며, 여기에서는 그 시간이 “近午時”이다.³⁹⁾ 두 사람의 진술만 놓고 보면 김상용의 폭사 시간이 오시(11시 30분~13시 30분)의 처음, 즉 11시 30분경으로 읽히지만, 여기서의 “午時”는 해가 남중하는 正午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金議政江都丁丑錄』의 序文은 폭사 시간을 “22일 오전(二十二日午前)”으로, 역시 예부 보고에서 인용한 尹昉의 진술은 “午後”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의 위치를 보고 시간을 가늠했기 때문에 사람마다 가늠한 시간이 조금씩 다르기 마련인데, 어떤 이는 “午前”, 또 어떤 이는 “午後”라고 가늠했다면 여기서의 “午”는 正午로 읽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近午時”는 “정오에 가까운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仁祖實錄』의 찬자가 원문의 “近午時”를 “午時”로 바꿔 쓴 이유도, 예조의 보고에 나란히 인용된 許允潤 등의 “近午時”와 윤방의 “午後”가 같은 시각을 서로 달리 가늠하여 표현한 것이라는 사실을

36)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정월 22일.

37) 『金議政江都丁丑錄』[인조 19년(164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 6977] 3a면 “乃與大君還入城, 未幾賊鋒已至”; 13a~13b면 “至南門樓上, 則敵之前鋒已到城外.”; 19b면 “語未卒, 聞敵騎已到南山高丘.”; 20a~20b면 “俄而敵兵大至圍城. 近午時, 南門火發, 烈焰漲天.”

38) 『仁祖實錄』 권35, 인조 15년 시월 28일 “懷恩君德仁, 珍原君世完以爲, ‘其日午時, 南門火發, 烈焰漲天, 竝與門樓而飄去. 城中鼎沸, 蒼黃奔走, 來傳者皆曰, 「金政丞自燒死」云.’”

39) 『金議政江都丁丑錄』 20a-20b면 “俄而敵兵大至圍城. 近午時, 南門火發, 烈焰漲天.”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近午時”는 “午後”와 모순되지만, “午時”는 정오 전후의 시간대(11시 30분~13시 30분)를 의미하므로 “午後”와 모순되지 않는 것이다. 위에서 이민구의 “日過午”를 “해가 正午를 지났을 때”로 번역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상의 여러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청군이 11시~11시 30분의 어느 시점에 도해를 개시하자, 잠시 후 봉림대군 일행이 갑곶을 떠나 강화부성으로 달려갔다. 청군의 선봉 병력은 순식간에 갑곶을 장악하고 이내 성으로 진격하여 남문 밖에 진을 쳤다. 봉림대군과 함께 성으로 돌아온 김상용은 절망감에 휩싸여 남문 위에 쌓아둔 화약에 불을 붙여 자결하였는데, 그 시간은 12시 30분경이었다.

다섯째는 청군이 갑곶에 상륙한 이후의 전투에 관한 것이다. (다)의 『仁祖實錄』 정월 22일 기사에 “中軍 黃善身은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룻가 뒷산에 있었는데 賊을 만나자 군사가 무너져 죽었다.”는 말이 있었다(④ 부분). 황선신과 관련하여, 이민구는 (라)에서 “本府의 中軍 黃善身이 廣城으로부터 비로소 육군 113명을 이끌고” 왔다고 하여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황선신은 강화부성이 아니라 장신이 주둔하고 있던 광성으로부터 올라왔고, 그의 병력은 113명이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세한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이민구가 당시 강화도 주재 조선 지휘부의 핵심 인사였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다)의 『인조실록』 정월 22일 기사로 돌아가 보면, 황선신의 패전 다음에 곧바로 청군이 강화부성 밖에 진을 쳤다는 이야기가 이어진다(⑤ 부분). 이민구의 기록에서도, 황선신의 패전 이후 강화부성으로 몰려가면서 약탈과 살인을 자행하는 청군에 맞서 싸운 조선군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조익의 경우에는 황선신 부대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고, 단지 김경징이 강화부성에서 테리고 나간 “무사”들이 겨우 칠팔십 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을 따름이다.⁴⁰⁾ 나만갑은 「記江都事」에서 당시 강화부성의 군사가 “수백 명을 채우지 못할” 정도

40) 趙翼, 「丙丁記事」 “聞變之初, 或謂宜吹角聚軍。金慶徵謂, 如是則人心驚, 只聚城中武士而往。其數僅可七八十, 令被甲下至津邊。余亦令車仲轍, 往與諸軍共射之。檢察等諸人, 皆坐於倉屋簾下。”

로 적었다고 하였으나,⁴¹⁾ 『인조실록』과 이민구의 목격담에서는 “수백 명”은커녕 그 존재가 아예 언급되지 않았고, 조익의 기록에서는 그 숫자가 훨씬 더 적었던 것이다.

『인조실록』과 이민구가 김경정의 군사를, 조익이 황선신의 군사를 각각 누락 하였지만, 당시 갑곶에 있던 조선의 정규 군병이 아무리 많아야 이백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였던 것만은 확실하다.⁴²⁾ 그렇기 때문에 (라)에서 보듯이 봉립대군은 청군이 염하수로의 중간을 지날 무렵 강화부성으로 돌아가 군사를 모집해 오겠다며 갑곶 현장을 떠났던 것이다. 그런데 (다)의 『인조실록』 정월 22일 기사는 봉립대군이 “용사를 모집하여 출격하였으나 대적할 수 없어 혹은 죽고 혹은 부상을 입고 돌아왔다.”고 하여(인용문의 ⑤ 부분), 그가 강화부성으로 돌아와 모집한 용사들을 데리고 성을 나가 청군과 전투를 벌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라)에서 이민구는 “나중에 들으니, 上[봉립대군을 지칭: 인용자]께서 府中에 이르러 갑옷을 입고 병사를 모집하였으나 南門에 이르러 賊을 만나자 (출격을) 멈추었다고 한다.”라고 하여 봉립대군의 출격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⁴³⁾

지금까지 『인조실록』의 정축년 정월 22일자 기사로부터 출발, 이민구와 조익의 목격담을 중심으로 조선 측의 주요 기록을 대조·검토하여, 당일 청군의 도해 전후로부터 강화부성 도착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장신과 강진흔 함대의 동태, 조류의 변화 시간, 청군의 도해 시간, 청군 상륙 이후의 전투 등으로 나누어 그려 보았다. 그런데, 당연한 말이겠지만, 정축년 정월 22일 강화도 염하수로의

41) 申海鎮 편역, 앞의 책, 162면(국역).

42) 갑곶에 조선 군병이 이렇게 적었던 것은 당시 조선군의 배치 상황이 강화도 동북부 지역에 사실상의 무방비 상태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치 실태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범진, 앞의 논문, 제2장의 서술 참조.

43) 사실 봉립대군이 민간인을 급히 끌어모은 오합지졸을 이끌고 청군과 정면 대결을 벌이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더구나 봉립대군이 “용사를 모집”한 것은 갑곶 해안에 상륙하는 청군과 싸울 추가 병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청군이 이미 갑곶을 점령하고 강화부성 남문에 도착한 이상 성 밖으로 나가 무모한 싸움을 벌일 이유도 없었다.

갑곶 수역에는 청군도 있었다. 그렇다면 청 측도 같은 상황을 목격하였을 터인데, 그들은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

4. 청군의 현장 목격담 분석

강화도 작전에서 청군의 최고 지휘관은 睿親王 도르곤(Dorgon)이었다. 청의 內國史院 滿文 檔案을 보면, 정월 22일 도르곤이 홍타이지의 군영으로 보낸 최초의 전황 보고가 실려 있다. 청 측의 현장 목격담에 해당하는 이 보고의 내용을 우리말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바) [도르곤의 보고] 우리 군사가 (갑곶 건너편 해안에) 이르자, ①조선의 군사 40여 척이 나루에서迎敵하고 있었습니다. ②우리가 홍이포와 장군포를 쏘자 견디지 못하고 위 아래로 흘어져 도망쳤습니다. ③우리 군사는 끌고 간 배에 타서 進攻하여 [(배 위에) 서서 상앗대질을 하며], 강화도에 해가 뜨자 들어가, ④먼저 백 명이 조총을 들고迎邇하는 것을 격파하여 죽였습니다. ⑤이어서 숨어 있던 천여 명의 군사를 또 격파하여 죽였습니다.⁴⁴⁾ [원문자는 인용자]

(바)에서 당시 전황을 구성하는 요소는 ①~⑤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앞서 고찰한 조선 측의 기록 및 청 측의 다른 기록 등과 대조하면서 ①~⑤의 다섯 요소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⁴⁵⁾

44) 河内良弘譯註·編著, 2010 『內國史院滿文檔案譯註: 崇德二·三年分』, 松香堂書店, 60-61면 “[（배 위에） 서서 상앗대질을 하며】”는 『清太宗實錄』에는 없는데, 이는 만문 당안에 抹去 처리되어 실록으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45) 전쟁이 끝난 직후인 정축년 이월 5일 홍타이는 심양으로 서신을 띠워 본국에 승전보를 알렸다. 역시 만문으로 쓴 이 서신에서 홍타이지는 청군의 도해 전후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內國史院滿文檔案譯註: 崇德二·三年分』, 101면 참조. 이 서신에도 ①~⑤의 다섯 가지 요소가 공히 등장하나, 그 순서를 달리 한 탓에 도르곤의 보고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서신의 내용은 시간적으로 도르곤의 보고에 뒤질 뿐만 아니라 조선 측 기록과의 부합 정도도 떨어진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청 측의 목격담을 도르곤의 최초 전황 보고를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④ 요소를 보자. 조선 수군의 전선 숫자를 두고 도르곤의 보고는 “40여 척”이라고 하였다. 이는 당시 갑곶 수역 북쪽과 남쪽 해상에 강진흔 함대의 7척, 장신 함대의 27척이 있었다는 조선 측의 기록과도 거의 부합한다. 이어지는 ⑤의 “위 아래로 흘어져 도망”쳤다는 말은 조선 수군이 강진흔과 장신의 함대로 나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위 아래로”的 만문 원문은 “wesihun wasihūn”인데, “wesihun”은 ‘위’/‘동쪽’, “wasihūn”은 ‘아래’/‘서쪽’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동쪽과 서쪽으로”라고 옮길 수도 있지만, 당시 갑곶 해상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흘어지는 것은 방위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바)에서 “위 아래로” 옮겼는데, 이는 곧 “상류 쪽과 하류 쪽으로”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⑥와 ⑦는 조선 수군이 홍이포 등의 포격을 견디지 못하여 도망을 친 다음에 청군이 바다를 건넜다는 내용이다. 청군의 渡海는 홍이포 포격 이후 갑곶 앞 해상으로부터 조선 수군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살핀 조선 측 기록들에 따르면 당시 조선 수군의 전선들은 갑곶 앞 해상까지 전진하지 못한 상태였다. 갑곶 나루의 뱃길이 무인지경으로 된 경위는 달리 전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청군이 무인지경의 뱃길을 건넜다는 점에서는 쌍방의 기록이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뒤의 논공행상 관련 기록에 청군의 배가 渡海 과정에서 “조선의 전함과 충돌(衝過朝鮮戰艦)”하였다는 언급이 보인다. 이 기록에 따르면, 色勒(Sele)이 지휘한 배가 가장 먼저, 그 뒤를 이어 碩奮(Šojan)의 배가 강화도에 상륙하였고, 두 사람은 그 용맹함을 인정받아 포상을 받았는데, 모두 渡海 과정에서 “조선의 전함과 충돌”하였다는 것이다.⁴⁶⁾ 두 사람의 배가 “조선의 전함과 충돌”하였다는 말은 과연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일까?

일단 나만갑의 「記江都事」에 묘사된 강진흔의 奮戰은 사실이 아니므로 色勒 등의 배와 교전한 것은 강진흔의 함대가 아니다. 그런데 「記江都事」에 “그때 井浦萬戶 鄭挺과 德浦僉使 趙宗善이 先鋒이 되었는데, 賊이 처음 건너오자 鄭挺이 賊의 배 한 척을 침몰시키고 장차 전진하여 싸우려고 할 때, 장신이 징을 쳐서 군사를 물리니 鄭挺도 그대로 물러나 돌아갔다.”는 서술이 보인다.⁴⁷⁾ 이것이 사

46) 『清太宗實錄』 권37, 숭덕 2년 칠월 17일.

실이라면, 色勒 등의 배와 충돌한 조선의 전함은 鄭挺의 배였을 수 있다. 하지만 전후의 조선 조정은 여러 장수의 폐전 책임을 따질 때, “여러 장수가 비록 죄로 처벌을 받았더라도 그 (휘하) 군인 (중에) 힘써 싸운 자가 있으니, 이런 자는 賞을 줄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⁴⁸⁾ 만약 鄭挺이 청군의 배를 침몰시킨 일이 있었다면, 결국 포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논의는 있었을 터이나 현존 기록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다. 강진흔의 舉戰에 대한 묘사와 마찬가지로, 鄭挺의 배가 적선을 침몰시켰다는 이야기는 「記江都事」 및 유사 ‘버전’의 傳聞 기록에만 등장하는 것이다.⁴⁹⁾

게다가 鄭挺의 배가 청군의 배 한 척을 침몰시켰다는 「記江都事」의 기록이 色勒과 碩魯 모두 “조선의 전함과 충돌”하고도 강화도에 상륙하였다는 청의 논공 행상 기록과 완전히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 조선의 여러 기록이 염히수로를 건너는 청군의 배를 아무도 막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다른 무엇보다도 도르곤의 최초 전황 보고 역시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사실 곰곰이 따져 보면, 色勒 등이 “조선의 전함과 충돌”하고도 침몰하지 않고 강화도에 상륙했다는 이야기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당시 청군의 배는 수레에 실어 운반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로, 이렇게 작은 배가 “조선의 전함”과 충돌하고도 침몰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色勒 등에 대한 포상 사유의 “조선의 전함과 충돌” 운운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渡海를 감행한 두 사람의 용맹함을 강조하기 위한 상투적 수식어구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검토한 ①·②·③ 요소를 놓고 보면, (바)의 도르곤 보고는 조선 측의 기록들과 거의 부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도르곤의 보고 내용을 모두 신뢰하는 것도 금물이다. 일단 ④의 요소, 즉 상륙 직후의 교전 부

47) 申海鎮 편역, 앞의 책, 174-175면의 한문 원문.

48) 『承政院日記』 56책, 인조 15년 이월 16일 “諸將雖被罪罰, 其軍人或有力戰者, 此則可以有賞也. (중략) 有功者, 可以施賞. 不然則必有冤矣.”

49) 예컨대 南磯, 『南漢日記』, 172-173면(국역)과 『大東野乘』 수록 「逸史記聞」(한국고전종합 DB)의 정축년 정월 22일조 참조. 특히 “正浦萬戶”의 배가 賊船 한 척을 침몰시켰다는 후자의 서술은, 그에 앞서 장신의 배가 전진을 멈춘 뒤로 뒤따르던 배들 역시 모두 멈추었다는 내용과 모순된다.

분까지는 조선 측 기록과 부합한다. 즉 (바)의 “백 명”은 (라)의 이민구 기록에 등장하는 황선신의 부대 “113명”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⑥의 요소, 즉 “숨어 있던 천여 명의 군사”는 실체가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군의 갑곶 상륙 이후 강화부성 도착까지 그들과 교전한 조선군은 황선신 부대뿐이었기 때문이다.⁵⁰⁾

또한 강화도에서의 전과를 제대로 조사한 뒤에 시행된 정축년 칠월의 논공행상 기록을 보면, 강화도 작전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사람은 맨 먼저 상륙하여 황선신의 부대를 격파한 色勒과 碩詹, 흥이포를 맡았던 張成德, 선박의 건조를 지휘한 修克申(Tungkešen) 등 네 명뿐이었고,⁵¹⁾ 천 명이나 되었다는 복병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다. 게다가 칠월 26일 明의 장수 祖大壽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흥타이지는 “우리 군사는 이미 (갑곶) 언덕에 오른 뒤에 다시 언덕 위에 늘어서선 (조선의) 군사를 격파하였고, 마침내 강화부성을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서신에서 갑곶 상륙 후 교전은 단 한 차례만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⁵²⁾ 정축년 칠월의 두 기록은 청에서도 나중에 도르곤 보고의 복병 천 명이 실체 없는 허구라는 것이 밝혀졌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바)의 도르곤 보고에서 다른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⑥의 “흥이포와 장군포를 쏘자 견디지 못하고 위 아래로 흘어져 도망쳤습니다.”라는 구절이다. 청군이 도해를 개시하기 전에 조선 수군의 배들이 이미 흥이포에 제압되어 모두 도망치고 없었다는 말이다. 아무도 청군의 도해를 막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조선 측의 기록과 합치한다. 그러나 조선 측 기록에 언급된 청군의 흥이포 포격은 북쪽 해상의 강진흔 함대와 대안의 갑곶을 겨냥한 것뿐이다. 기이하게도, 장신의 함대에 관해서는 청군이 그들에게 흥이포를 쏘았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 그 대신에 조류의 변화가 부각되어 있다. 흥이포가 거둔 실질적인 ‘전공’은 강진

50) 다만 강화부성으로 진격하는 도중에 무장도 하지 않은 일반 백성을 일방적으로 도륙하고 서는 그것을 전투 성과로 포장했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逸史記聞」 정축년 정월 22일조의, “江華 中軍 黃顯男”이 전날 張紳의 명으로 칙을 캐러 갔던 “未滿千人”的 사람들을 이끌고 청군과 싸웠다는 이야기는, “江華 中軍”的 이름도 틀렸지만, 중군 황선신이 이끈 것은 분명 민간인이 아니라 정규 군병이었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

51) 『淸太宗實錄』 권37, 숭덕 2년 칠월 17일 참조. 이때 이후로도 강화도에서 실제 전공을 세운 다른 사람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52) 『淸太宗實錄』 권37, 숭덕 2년 칠월 26일 “我軍旣登岸，復敗岸上陳列之兵，遂取江華府城。”

흔 함대에 국한되었던 셈이다. 따라서 조선 측 기록에 근거하자면, (바)의 도르곤 보고에 등장하는 흥이포의 ‘전공’ 역시 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이런 과장은 조선 측의 기록과 완전히 모순되지는 않는다고 넘어가 줄 수 있다. 하지만 청군이 도해하여 강화도에 들어간 시간을 “해가 뜨자”로 표현한 부분은 그렇지가 않은데, 이 문제는 절을 바꾸어 좀 더 자세히 파고들 필요가 있다.

5. 서로 엇갈리는 목격담: 청군의 渡海 시각 문제

서술의 편의상 (바)의 최초 전황 보고를 한문으로 옮긴 『清太宗實錄』(乾隆三修本)을 먼저 살펴보면, 정월 22일 청군이 강화도에 상륙한 시각을 “黎明”, 즉 ‘희미하게 날이 밝아올 무렵’으로 적고 있다.⁵³⁾ 종래 청군의 渡海 시간을 “새벽”으로 본 것도 이를 기록에 근거한 듯하다.⁵⁴⁾ 그런데 “黎明”은 順治 初纂本 『清太宗實錄』의 “卯時”를 改譯한 것이고,⁵⁵⁾ “卯時”는 바로 도르곤 보고의 만문 “šun tucime(해가 뜨자)”를 漢譯한 결과였다. 따라서 “黎明”은 일단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강화도 현지의 “卯時”란 오늘날의 표준시(UTC+9)로 5시 30분~7시 30분에 해당하고, 양력 2월 16일경 강화도의 일출 시각은 오전 7시 20분경이므로, 순치 초찬본 『清太宗實錄』의 “卯時”까지 오역으로 치부할 필요는 없다. 청군이 “卯時”的 끝 무렵에 상륙하였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이다.

한문 『清太宗實錄』의 “黎明”과 “卯時”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서는 응당 (바) 도르곤 보고의 “해가 뜨자”, 즉 7시 20분경을 청 측 기록이 전하는 도해 시각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⁵⁶⁾ 그러면 조선 측 문헌들은 청군의 도해 시각

53) 『清太宗實錄』 권33, 숭덕 2년 정월 임술 “黎明, 我軍乘船進攻, 入江華島.”

54) 예컨대 한명기, 2013 앞의 책, 194면의 “1월 22일 새벽, 청군은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다.”

55) 『內國史院滿文檔案譯註: 崇德二·三年分』, 61면의 “順實” 부분 “我兵乘自造船, 卯時進江華島.”

을 어떻게 기록하였던가? 먼저 앞서 인용한 (가)의 「記江都事」에서 청군의 渡海는 문맥상 “22일 새벽녘”에 벌어진 일로 읽힌다. 『承政院日記』에도 “敵兵이 江都를 함락시킨 것은 야음을 틈타 몰래 습격한 것일까요?”라는 具宏의 질문에 인조가 “필시 야음을 틈타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온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온다.⁵⁷⁾ 이 두 기록의 청군 도해 시간은 도르곤 보고의 시간과 가깝다. 그러나 『承政院日記』의 기사는 정월 29일 남한산성에서 있었던 대화 장면을 기록한 것이므로 막연한 추측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나만갑의 기록 역시 사후의 전문이다.

한편 도르곤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현장 목격담이었던 이민구·조익의 기록은, 도르곤 보고의 7시 20분경으로부터 두 시간 이상이 흐른 巳時(9시 30분~11시 30분)의 갑곶 앞 해상 상황을 묘사한 다음에야 청군의 도해 모습을 그리고 있다. 특히 (마)에서 보듯이 조익은 청군의 도해 개시 시각을 “오시쯤”, 즉 11시~11시 30분으로 특정하였다. 7시 20분경과 11시~11시 30분 간의 시차는 대략 네 시간이나 된다. 조선 수군이 아무도 도해를 막지 않고 있던 상황을 두고, 도르곤의 보고가 흥이포의 위력을, 조선 측의 기록이 조류의 변화를 강조한 것은 같은 사태에 대한 다른 시각에서의 묘사 내지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군의 도해 시각 문제는 단지 시각이나 입장의 차이로 돌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네 시간의 차이는 양립도 타협도 불가능하다. 둘 중의 하나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연 어느 쪽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

이민구·조익의 기록은 당일 갑곶 현장에 대한 목격담으로서 청군의 도해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들의 기록이 전하는 청군의 渡海 시각은 나만갑의 기록을 제외하고 앞서 검토한 조선 측의 주요 기록들과 모순되지도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이민구·조익의 목격담에 더 높은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

56) “해가 뜨자”의 원문 “šun tucime”를 해가 뜬 뒤의 ‘낮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여지도 없지는 않다. 그 경우 이를 戰果 과장을 위한 시간적 장치(후술)로 볼 이유도 사라진다. 그러나 순치 연간의 한문 『清太宗實錄』 찬자들이 “卯時”로 번역했다는 사실을 무시하기 어렵다.

57) 『承政院日記』 55책, 인조 15년 정월 29일 “宏請曰, ‘敵兵之陷江都也, 乘夜潛襲乎?’ 上曰, ‘必乘夜入去, 故不覺其至也.’”

을 터이지만, 여기서 두 사람의 기록이 설사 목격담이라고 할지라도 그 객관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정당한 의문이므로, 도해 시각 문제와 관련하여 두 사람의 기록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

우선 두 사람에게 누군가를 비호하거나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당시 상황 속에서의 행동 묘사만으로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터이므로, 굳이 시간까지 ‘조작’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두 사람의 기록에 등장하는 시간이 ‘조작’에 불과했다면 다른 기록과의 모순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두 사람의 시간 정보는 조선 측의 여러 다른 기록과 모순이 없었다. 이들 기록이 모두 시간 ‘조작’의 결과라면, 거기에는 이해를 달리하는 다수의 ‘공모’가 필요한데, 이런 ‘공모’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이민구와 조익의 목격담 안에서 시간적으로 청군의 渡海 개시에 선행하는 장신 함대의 동태에 대한 묘사에 한번 주목해 보자. 장신 함대가 북상하다가 전진을 멈춘 장면은 已時의 상황이었다. 두 목격담의 객관성을 의심해 본다면, 여기서 관건적인 고려 요소는 두 사람과 장신의 관계가 될 것이다. 사실 조익의 경우는 張維, 崔鳴吉, 李時白과 교분이 매우 두터워 당시 사람들이 이들을 “四友”라고 불렀는데,⁵⁸⁾ “四友” 가운데 張維는 바로 장신의 형이다. 이로부터 조익이 장신을 비호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익은 장신의 함대가 전진을 멈추었다는 객관적 사실만 언급했을 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⁵⁹⁾

반면에 이민구는 조류의 방향이 바뀐 탓에 장신이 전진할 수 없었다고 말했는데, 이는 분명 장신에게 유리한 진술이다. 그렇다면 이민구는 장신을 비호하려고 했던 것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민구가 남긴 기록의 전체적인 기조는 강화도 失陷의 책임은 자신과 김경정이 아니라 장신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이민구는

58) 宋浚吉, 『同春堂集』(한국고전종합DB) 권23, 謂狀「奮忠贊謨立紀靖社功臣大臣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延陽府院君李公謚狀」“如趙文孝公, 翟谷張文忠公, 完城崔相公, 交誼最不凡, 時人目謂四友.”

59) 趙翼의 기록이 기본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한 허태구, 앞의 논문, 105-106면 참조.

검찰사와 부검찰사의 직무가 강화도로 가는 육로와 수로의 교통을 안배·관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강화도에 들어간 뒤로는 사실 “불필요한 관원[冗官]”이 되었으며, 남한산성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수륙의 방비는 오로지 유수 장신에게 맡긴다”는 인조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강화도 守禦의 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⁶⁰⁾ 또한 장신이 “오랑캐는 날아서 (강화도로) 건너올 수 없다.”고 장담하면서, “간혹 軍校가 와서 賊情을 고하고 동료들이 방비를 더욱 엄히 하자고 권유할” 때마다 “걱정이 지나치고 쓸데없이 겁을 낸다”고 하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기록하였다.⁶¹⁾ 나만갑이 김경징의 한심한 작태로 묘사한 것과 매우 유사한 언행을 이민구는 장신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신이 조류 때문에 북상을 멈추었다는 이민구의 말은 장신을 비호하려는 의도의 산물로 볼 수 없다.

혹 설사 목격담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기록한 것이라면 기억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사실 이민구의 기록은 효종 8년(1657) 鄭世規에게 보낸 서신 내용이므로, 사건으로부터 무려 20년이나 경과한 때의 기억이다.⁶²⁾ 그러나 정축년 정월 22일의 상황에 대하여 시간 정보가 가장 풍부한 조의의 기록은 당시 좌의정이 좌의정을 맡고 있다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⁶³⁾ 인조 15년(1637) 칠월부터 인조 16년(1638) 구월 사이에,⁶⁴⁾ 즉 사건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작성된 것이다. 이민구의 경우도, 당일에 목도한 강화도의 참상은 그 자체로 결코 잊을 수 없는 충격으로 각인되었을 것이 분명하며, 그가 전쟁이 끝난 직후 문책 대상이 되어 당일

60) 李敏求, 「答鄭判書書」“至十六日, 嫣宮始由廣城津入江都。檢察之職, 只管道路舟船供頓, 而既入島, 臣等實爲冗官。居數日, 武人崔尙元, 自山城齋到蠟書, 有旨曰, ‘水陸防備, 專委留守張紳, 俾無掣肘之患。’間兩日, 不記名僧人, 又自山城來到, 有旨同前。蓋行朝慮外圍嚴密, 尚元不得達, 更申前旨云。臣等始無守禦責, 朝旨又如此, 江都機務, 所非敢與知。”

61) 李敏求, 「答鄭判書書」“張紳亦非欲玩寇僨事, 致誤家國, 但以過循物情, 重於調撥, 謂虜不能飛渡, 間有軍校之來告賊情, 同列之勸加嚴備, 輒以爲過慮虛怯, 志氣伉厲, 未肯措意, 斯亦天也。”

62) 李敏求, 「答鄭判書書」“僕之得罪, 迄今二十年。”

63) 趙翼, 「丙丁記事」“道遇今崔左相鳴吉, 時爲吏判。”

64) 左議政 崔鳴吉은 인조 15년 칠월 11일 좌의정이 되었고, 인조 16년 구월 15일 영의정으로 승진하였다. 『承政院日記』 59책, 인조 15년 칠월 11일: 66책, 인조 16년 구월 15일.

의 행적에 관한 신문에 시달렸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⁶⁵⁾ 이 점에서는 조익도 물론 다를 바 없었다.⁶⁶⁾

이처럼 이민구·조익의 목격담이 그 신빙성을 의심할 이유가 거의 없는 것과 대조적으로, 도르곤의 보고에는 곧이곧대로 믿기 곤란한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앞서 지적하였듯이 도르곤의 보고에 등장하는 조선군 복병 천 명과의 교전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허구적 요소이다. 도르곤의 전황 보고는 분명 전과를 과장하였던 것이다. (다)의 『仁祖實錄』 정월 22일 기사에서 청군이 강화부성에 입성한 시간은 “날이 저물 무렵[日晚]”(⑥ 부분)이었다. 양력 2월 16일경의 일몰 시각은 18시 10분경이므로, 조선 측 기록은 도해 개시(11시~11시 30분)부터 입성까지 6시간 40분에서 7시간 10분이 걸렸다는 말이 된다. 반면에 일출 직후(오전 7시 20분경)에 상륙하였다는 도르곤의 보고는 그로부터 입성까지 무려 11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된다. 도르곤은 복병 천 명과의 교전을 그럴 듯하게 만들려면 교전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반영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가 뜨자”는 과장된 전과를 시간상 그럴 듯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였을 가능성이 높후하다.

6. 당일 염하수로의 潮汐·潮流와 청군 渡海 전후 상황의 재구성

또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헌 사료의 내용 분석으로부터 확인되는 신빙성의 격차만으로는 여전히 도르곤 보고의 “해가 뜨자”를 ‘폐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조선 측 기록에 부각되어 있는 潮汐·潮流에 주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사

65) 『承政院日記』는 차치하더라도, 실록만 해도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이월 11일조를 비롯해서 줄기차게 李敏求의 治罪를 요구하는 三司의 상소가 빈출한다. 이민구에 대한 治罪 요구는 인조 15년 시월에 가서야 면추었다. 『仁祖實錄』 권35, 인조 15년 시월 23일 “兩司竝停金自點李敏求等依律之論.”

66)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이월 20일: 권37, 인조 16년 칠월 22일: 권37, 인조 16년 팔월 3일: 권37, 인조 16년 구월 26일: 권37, 인조 16년 구월 28일: 권37, 인조 16년 십이월 17일 등 참조.

실 염하수로는 수심이 얕고 폭이 좁다는 것 외에 조석 현상이 매우 뚜렷한 지역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런 지역에서의 군사 작전에는 물리적 해양 환경이 큰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므로, 당일의 조석·조류에 관한 정보는 戰場의 상황 이해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석 현상은 기본적으로 천문 현상에 의해 발생하므로 미래에 대한 예측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추산 역시 가능하다. 이 점에 착안하여, 지금부터는 조석·조류의 추산 결과를 활용하여 청군 도해 전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보기로 하겠다.

조석·조류 추산 결과를 보기전에 앞서, 갑곶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祖江 나루, 즉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여 흐르는 해역(아래 <그림 1>의 우측 상단 지역)의 조석 시각을 전하는 문헌 기록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고려 시대 李奎報가 남긴 潮候詩와 조선 후기 成海應이 『研經齋全集』外集의 「祖江濤志」에 정리한 '조석표'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음력으로 매월 22일 조강 나루의 낮 시간 고조 시각은 "사시 초[巳初]"였다. 「조강도지」의 '조석표'는 매시를 初·中·末로 삼분하였으므로 "사시 초"는 9시 30분~10시 10분의 시간대로 간주할 수 있다.⁶⁷⁾ 이는 사시(9시 30분~11시 30분)에 조류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전하는 조선 측 목격담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조강도지」 '조석표'의 "사시 초"는 옛날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물때를 대략적이고 평균적인 시간대로 표현한 것일 따름이다. 전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려 보기 위해서는, 강화도 합락 당일 갑곶 부근(강화대교)의 조석 시간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염하수로의 조류에 관한 정보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축년 정월 22일, 즉 1637년 2월 16일의 조석과 조류를 추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⁶⁸⁾

먼저 그날의 조석 시간은 5시 4분에 저조(=간조), 10시 34분에 고조(=만조), 17시 20분에 저조, 22시 36분에 고조로 추산되었다. 저조에서 고조까지 걸린 시간은 각각 5시간 30분과 5시간 16분이었고, 반대로 고조에서 저조까지 걸린 시

67) 구만옥, 2014 「성해옹(成海應, 1760-1839)의 조석설(潮汐說)」, 『한국과학사학회지』 36-3, 357-390면 참조. 성해옹의 '조석표'는 같은 논문, 370면의 <표 4>.

68) 이하 조석과 조류의 추산 결과에 관한 내용은 모두 변도성·김효원·구범진, 앞의 논문에 근거한 것이다.

간은 6시간 36분이었다. 또한 그날의 조석 환경은, 대조기를 지나 소조기, 특히 달과 지구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시기에 나타나는 ‘작은 소조기’로 가는 중간 시기였기 때문에 조류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느렸을 것으로 추산되었다.

다음으로 조류의 방향이 변한 시각, 즉 轉流 시각의 경우는, 漲潮流 前 轉流가 4시 30분과 17시 13분에, 落潮流 前 轉流가 10시 38분과 22시 46분에 일어난 것으로 추산되었다. 조류의 속도는 해수유동 관측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염하수로 북쪽 입구 부근을 기준으로 추산하였는데, 오전과 오후의 창조류는 최대 초속 90센티미터 전후, 오전 10시 38분 이후의 낙조류는 최대 초속 68센티미터 전후로 계산되었다. 창조 지속 시간이 낙조 지속 시간보다 한 시간 이상 더 짧은 조석 비대칭 현상 때문에 창조류의 유속이 더 빨랐던 것이다.

10시 30분대에 고조와 낙조류 전 전류가 있었다고 추산된 이상, 이제는 청군의 도해 시간에 대하여 청 측 기록의 “해가 뜨자”를 완전 ‘폐기’하고 조익이 밝힌 “오시쯤[午時許]”, 즉 대략 11시에서 11시 30분으로 추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조류가 방향을 바꾼 시점으로부터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이 흐른 뒤에야 청군이 비로소 도해를 개시하였다는 추정도 도출된다.

단, 역사적으로 염하수로의 지형은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향으로 장기간에 걸쳐 변화해 왔다. 특히 연안의 간척 사업 등으로 수역과 수로 폭의 감소, 해안선의 단순화·직선화 등이 진행되었다.⁶⁹⁾ 따라서 지형의 변화로 조석과 조류의 특성이 어느 정도 변화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성해옹의 ‘조석표’, 조석·조류 추산 결과, 오늘날의 관측 결과 등을 대조·종합한 결과, 지형 변화가 조석 시간에 끼친 영향은 미미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염하수로 갑곶 인근 구간의 수로 폭이 다른 구간보다 좁다는 사실이다. 갑곶 구간에 나루터가 자리를 잡았던 것도 원래부터 갭벌의 폭과 수로 폭이 좁았기 때문일 것이고, 인위적 간섭에 의한 지형 변화도 다른 구간에 비해 훨씬 더 작았을 것으로 보인다.⁷⁰⁾ 이 경우 수로의 폭이 지금보

69) 이선화, 2013 「염하수로의 해안지형 및 경관 변화」,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참조.

70) 이민웅, 1995 「18세기 강화도 수비체제의 강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면의 <지도 2>를 보면, 효종 대 이후 강화도 연해에 간척지가 광범위하게 조성되었지만, 염하수로 갑곶 구간의 경우는 간척지가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염하수로 양

다 넓었던 인접 구간, 특히 남쪽 구간과 갑곶 구간 간 조류의 유속 차이는 과거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커울 것이다.

한편 선박, 특히 조선 수군의 판옥선과 같은 대형 선박의 작전 기동에는 수심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오늘날 염하수로의 수심은 평균 5미터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⁷¹⁾ 역사적으로 수로 폭이 감소함에 따라 수심도 점차 깊어졌을 수 있지만 수로 바닥의 퇴적 상황 변화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심의 증감 여부는 선불리 추정할 수 없다.

이들 조건을 감안하면서 조석·조류 추산 결과와 주요 문헌 기록의 내용을 대조하고 종합하여, 청군 도해 전후 조선 수군의 동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보자.

먼저 강진흔 함대의 동태이다. 그날 강진흔 함대의 동태를 두고, “(청군이 도해할) 때에 앞서 (미리 상류 쪽으로 배를) 옮겨 피하였고, 조수의 흐름을 타고도 내려오지 않았다[先期移避, 順潮不下]”는 비난이 있었다.⁷²⁾ 巳時(9시 30분~11시 30분) 직전 또는 초반의 강진흔 함대에 대해서 조익은 정박 상태에 있었다고 말했고 이민구는 “급류 속에 뒷을 내리고” 있었다고 묘사하였다. 충청수사의 虞候 邊以惕의 죄목은 “戰船을 이끌고 갑곶의 상류에 있다가 포성을 듣고 무너져 달아났다”는 것이었다.⁷³⁾ 한편, 조석·조류 추산 결과에 따르면, 당일 새벽 염하수로의 강화대교 부근은 4시 30분 창조류 전 전류, 5시 4분 저조를 기록하면서 밀물 시간에 들어갔다. 북쪽으로 흐르는 염하수로의 창조류는 고조 시각(10시 34분)과 낙조류 전 전류 시각(10시 38분), 즉 10시 30분대까지 유지되었다.

문헌 기록과 조석·조류 추산 결과를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려 볼 수 있다. 먼저 “(청군이 도해할) 때에 앞서 (미리 상류 쪽으로 배를) 옮겨 피하

안의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와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 남아 있는 갑곶나루 선착장 石築路(인천광역시 기념물 제25호)도 갑곶 일대에 지형 변화가 거의 없었음을 방증한다.

71) 이선희, 앞의 논문, 127면.

72) 『承政院日記』 58책, 인조 15년 유월 1일 “姜晉昕, 先期移避, 順潮不下, 失律之罪, 與張紳, 少無異同.”

73)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삼월 6일 “公清虞候邊以惕, 領戰船在甲串上流, 聞砲聲奔潰, 事極痛駭.”



〈그림 1〉 조선후기의 염하수로

출전: 「東國輿圖」(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古大4760-50, 18세기 후반 추정)

였고”는 창조류가 흐르던 시간에 북쪽으로 배를 옮긴 것을 가리키고, “급류 속에 닻을 내리고” 정박하고 있었다는 것은 조류에 더 이상 밀리지 않기 위하여 닻을 내려 버ти고 있는 상황의 묘사이다. “조수의 흐름을 타고도 내려오지 않았다”와 “상류에 있다가 포성을 듣고 무너져 달아났다”는 것은, 10시 30분대 이후 낙조류를 타고 남하할 수 있었는데도 청군의 홍이포에 압도되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강진흔 본인의 배는 아마도 정박 상태에서 홍이포에 맞았기 때문에 조류가 바뀐 뒤에도 남하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강진흔의 부관인 변이척이 처형된 것은, 강진흔의 배가 피격된 이후 그에게 함대 지휘 책임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단, 이민구·조익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거리에 들어와 있었으므로, 강진흔의 함대가 연미정보다 북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보다 남쪽에 머무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이 경우 21일 늦은 밤부터 22일 새벽(4시 30분)까지 낙조류가 남쪽으로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강진흔은 낙조류가 흐르던 시간대의 어느 시점엔가 낙조류를 타고 잡곶 쪽으로 일정 거리 남하했다가, 조류가 다시 창조류로 바뀌자 북쪽으로 물러섰을 것이라는 추정도 해 볼 수 있다.

이번에는 장신 함대의 동태이다. 정월 22일 오전 염하수로의 창조류 전 전류 시작은 4시 30분으로 추산되었다. 장신 함대의 북상은 아무리 일러야 4시 30분

이후에나 가능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때가 마침 下弦이라 潮水가 매우 적어서 밤을 새워 배를 저었으나 22일 새벽녘에야 겨우 갑곶 아래로부터 5리쯤 떨어진 곳까지 이르렀다.”는 나만갑의 기록에서 “下弦이라 潮水가 매우 적어서”는 몰라도 “밤을 새워 배를 저었으나”는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반면에 장신이 “광성으로부터 새벽 조수를 타고 올라왔다”는 남급의 기록은 추산 결과와 부합한다.

다음으로, 장신의 함대가 북상해 오는 모습이 갑곶 언덕에 있던 조의의 가시거리에 들어온 것은 “사시(巳時)쯤 되었을 때”, 즉 9시 30분경이었다. 9시 30분경은 아직 창조류가 흐르던 시간이다. 이민구의 기록에서 조류가 순류(남에서 북으로)에서 역류(북에서 남으로)로 바뀐 탓에 장신의 함대가 북상을 멈추었다는 시점은, 조의 기록의 문맥상 사시에 들어선 이후 시간이 꽤 흐른 뒤였다. 이는 9시 30분경으로부터 약 1시간이 경과한 10시 30분대에 조류가 낙조류로 바뀌었다는 추산 결과와 딱 부합한다. 장신 함대의 출현에 “다들 크게 기뻐”하였던 사람들의 환호가 이 무렵 낙담과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장신 함대는 결국 뱃머리를 돌려 낙조류를 타고 남하해 버렸다.

그러나 장신 함대가 북상을 중단하고 결국에는 남하해 버린 것이 반드시 조류 때문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만약 역류의 세기가 판옥선이 노를 저어 얻는 추진력보다 작았다면 계속 북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사실 정축년 정월 22일은 달과 지구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때의 ‘작은 소조기’로 가는 중간 시기였기 때문에 조차가 작았고, 따라서 조류의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린 편에 속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염하수로 북쪽 입구의 경우 조류 속도는 아무리 빨라야 초속 1미터를 넘지 못하였고, 10시 30분대 이후의 낙조류가 초속 0.5미터(대략 1노트)를 돌파한 시간은 11시 30분을 지난 무렵이었다.⁷⁴⁾ 그런데 판옥선이 노를 저어 얻는 추진력은 최대 3노트(초속 1.54미터)였다고 한다.⁷⁵⁾ 갑곶 구간의 유속은 염하수로 북쪽 입구보다 훨씬 더 빨랐을 터이므로, 가령 두세 배 빠른 초속 1~

74) 변도성 · 김효원 · 구범진, 앞의 논문의 〈그림 3〉 참조.

75) 정진술, 1993 「한산도해전 연구」『壬亂水軍活動研究叢書』(海軍軍史研究室), 168-169면 참조.

1.5미터였으리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더라도 청군 도해 시간대(11시~11시 30분) 역류의 세기가 이론상 극복이 전혀 불가능할 정도로 강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광해군 11년(1619) 칠월, 강화도에 保障處를 구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의정 趙挺이 올린 상주에, “武臣 가운데 舟師를 잘 아는 자에게 물어보니, 다들 ‘板屋 戰艦은 大洋에 쓰는 것이다. 江華와 같은 急流에서는 결코 움직이기 어렵다. 만약 선체가 작은 兵船이라면 賊을 막는 데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보인다.⁷⁶⁾ 여기서 “강화와 같은 급류”가 염하수로를 가리킨다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 기록은 염하수로에서 대형 전선의 기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대의 상식이었음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금의 「강도록」도 장신이 “조수가 매우 빠르게 물러갔기 때문에 전선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하였다. 『肅宗實錄』에도 염하수로는 “물길이 좁고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舟師를 쓰기 어려워 賊이 침범하기 쉬운 곳”이라는 기록이 보인다.⁷⁷⁾ 책상 머리에서의 이론적 계산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닐지라도, 실제 상황에서는 역류를 거슬러 전선을 조종하거나 노 젓기를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⁷⁸⁾

한편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축년 이월 22일은 조차가 작아서 조류의 속도도 느린 편이었지만, 동시에 조수의 양도 적었다. 나만갑도 “下弦이라 潮水가 매우 적어서” 장신 함대의 운항이 쉽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당시 염하수로의 수심에 대한 선부른 추정은 금물이지만, 10시 30분대 이후 시간이 갈수록 수심이 장신 함대에게 점점 더 불리해졌으리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장신의 남하 결정은 이민구의 말처럼 물이 빠지면서 수심이 계속 낮아지게 되면 함대가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도 충분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시나리오도 짜 볼 수 있을 것 같다. 장신 함대가 갑곶 언덕에서의 가시거리에 들어온 9시 30분경부터 10시 30분대까지는 약 1시간

76) 『光海君日記(正草本)』 권412, 광해군 11년 칠월 3일 “第臣問諸武臣之熟諳舟師者，皆以爲‘板屋戰艦，用於大洋。如江華急流，決難運動。若體小兵舡，則可用禦賊也。’”

77) 『肅宗實錄』 권11, 숙종 7년 오월 21일 “自月串至德津，江狹水急，難用舟師，而賊所易犯。”

78) 해군사관학교 이민웅 교수의 자문에 따르면, 조선 시대에 조류를 거스른 판옥선의 작전 기동은 금기사항이었다고 한다.

이 있었다. 조수가 적은 데다가 순류의 유속도 느려지고 있었을 터이지만, 열심히 노를 저었다면 4~5킬로미터 북상도 불가능하지 않았을 만한 시간이다. 그럼에도 장신은 갑곶 앞 해상까지 올라오지 못했는데, 이는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청군이 도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설령 갑곶 앞 해상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청군의 배들이 해안에 정박하고 있는 이상 그들에게 의미있는 타격을 가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10시 30분대 이전 창조류가 흐르던 시간 동안 서둘러 갑곶 앞 해상에 이르렀다면, 더 이상 북쪽으로 밀려가지 않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노를 계속 젓거나 닻을 내려 정박해야 했을 것이다. 노를 계속 저을 경우 格軍들이 피로를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배가 멈추어 있게 되면 청군의 홍이포에 고정 표적이 되기 십상이었다. 이미 조류의 방향이 바뀌기 전부터 장신의 함대가 북상을 멈추어야 하는 상황이 펼쳐져 있던 셈이다.⁷⁹⁾

이런 시나리오까지 반영한다면, 10시 30분대까지의 장신 함대는 창조류를 타고 최대 속력으로 북상하고 있었거나, 혹은 조류의 속도가 느려지는 가운데 갑곶 앞 해상 접근을 의도적으로 자제하고 있었거나, 둘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다가 10시 30분대에 이르러 조류가 낙조류로 바뀌었다. 이 시점 이후 만약 조류를 거슬러 갑곶 앞 해상으로의 전진을 강행하였다면, 갑곶 앞 해상까지의 북상도 쉽지 않았거니와 도착 이후에는 남쪽으로 밀려 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하릴없이 계속 노만 저어야 했을 것이다. 이 역시 청군이 도해를 개시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수고였을 따름이다. 게다가 홍이포에 피격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기까지 한다. 결국 어떤 경우이든 당일 염하수로의 조석·조류는 장신에게 결국 뱃머리를 남쪽으로 돌리는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장신이 끝까지 자신의 협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79) 비록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후 전문이긴 하지만, 「逸史記聞」 정축년 정월 22 일조의, 청군의 홍이포가 對岸의 甲津倉까지 날아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장신이 加里山(갑곶에서 약 2킬로미터 남쪽) 아래에 닻을 내려 함대를 정박시켰다는 서술(“留守張紳，始領舟師發船上去，未到甲津五里許，見奴賊軍中放洪夷砲，砲丸大如鵝卵者，飛落甲津倉前，所中人無不糜碎。留守所乘之船，便下錨於加里山下。後來諸船以次下錨，更不前進。”)은 이런 시나리오와 상통한다.

것도⁸⁰⁾ 바로 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편, 이처럼 조선 수군의 동태에 조석·조류가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면, 청군 역시 염하수로를 건널 때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바)의 도르곤 보고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배 위에) 서서 상앗대질을 하며”라는 구절이 그것이다. 즉, 청군은 노가 아니라 상앗대를 써서 배를 움직였기 때문에 빠른 조류에도 불구하고 염하수로를 건널 수 있었다는 말이다. 사실 홍타이지는 정축년 칠월 祖大壽에게 보낸 서신에서, “아군의 飛船은 가볍고 날카로워 旋轉이 편리하고 빨랐기 때문에” 조선 수군의 배들이 청군의 도해를 막지 못하였다고 말한 바 있다.⁸¹⁾ 서신에서 홍타이지가 자랑한 청군 선박의 기동성은 노가 아닌 상앗대로 움직인 덕분에 확보된 것이 분명하다.

혹 얇은 수심이 그들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얇은 수심은 청군의 배처럼 작은 선박에게는 애시당초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앗대를 쓰기에 오히려 더 적합한 조건이었다. 그리고 청군의 배가 상앗대로 움직였다는 사실은, 비록 염하수로의 수심은 오늘날 추정 불가의 영역에 속할지라도, 당일 갑곶 나루 뱃길의 수심이 그리 깊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청군이 조류의 속도가 가장 느렸던 10시 30분대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최대 1시간이나 기다렸다가 “오시쯤[午時許]”(11시~11시 30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도해를 개시하였다는 점이다. 그들은 역류의 세기나 수심이 장신의 전선들이 자신들의 도해를 저지할 수 없을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군이 도해를 개시한 시간, 장신은 청군의 “飛船”들이 재빨리 뱃길을 건너는 모습을 그 남쪽 해상에서 분명 관찰할 수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간이면 꽤나 속도가 붙었을 역류로 인해, 다른 한편으로는 下弦이었던 데다가 고조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러 뱃길의 수심이 너무 낮아진 탓에 함대의 북상을 포기했던 것이

80)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사월 12일; 권34, 인조 15년 윤사월 29일.

81) 『清太宗實錄』 권37, 숭덕 2년 칠월 26일 “朕又令黑龍江海濱諸處, 備飛船八十隻, 攻江華島. 朝鮮以遼船百餘隻, 與我軍戰. 我軍飛船輕利, 旋轉便捷, 朝鮮莫能敵, 悉皆奔潰.”

아닐까? 「江都錄」의 “장신은 배 위에 앉아 가슴을 칠 때로이었다.”는 아마도 이러한 속수무책의 상황을 두고 나온 말이었을 것이다.

요컨대, 1637년 2월 16일 청군이 강화도 상륙 작전에 투입한 작은 배들은 객관적 水戰 능력의 측면만 보자면 판옥선을 비롯한 조선 수군의 전선 수십 척에 결코 필적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날 갑곶 나루의 벗길에서는 水戰이 벌어지지 않았다. 조선 수군은 객관적으로 우월한 수전 능력을 바탕으로 청군을 해상에서 저지한다는 구상이었겠지만, 당일의 전장에는 그러한 구상을 실현할 여지가 전혀 없었던 셈이다. 따라서 청군이 갑곶 나루를 공격 지점으로 선택한 순간⁸²⁾ 조선 수군의 해상 저지 구상은 이미 무력화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흥미롭게도 「江都錄」에는, 청군의 도해 직전 상황에서 任善伯이 봉립대군에게 “賊의 배는 가볍고 빠르기가 (마치) 날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전선은 조수가 물러날 때 움직이기 어려우니 전적으로 舟師에만 기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鎮海樓 아래 좁고 험한 곳에 포진하여 혈전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장면이 나온다.⁸³⁾ 「강도록」은 이 장면에 앞서 任善伯이 강화부성의 남문 수비를 맡았다고 하고서는, 난데없이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을 시도했다가 벗사람에 의해 살아났다면서 갑곶 현장의 봉립대군 앞에 그를 등장시키고 있다.⁸⁴⁾ 따라서 임선백의 등장은 허구적 장치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염하수로에서 “조수가 물러날 때”에는 조선 수군의 전선들이 청군의 도해를 저지할 수 없다는 말은

82) 병자호란 당시 갑곶 대안의 나루터가 위치한 문수산 일대는 완전 무방비 상태였다. 숙종 대에 이르러, “丙子年에 賊이 文殊山에 들어와 배를 준비하여 끌고 왔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기에 폐전에 이르렀다.”는 반성(『肅宗實錄』 권3, 숙종 원년 사월 28일)이 있었고, 이에 근거하여 문수산에 산성을 수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났다. 반론이 만만치 않았지만, 결국 숙종 20년 구월에 이르러 문수산성 수축 공사가 완료되었다(『肅宗實錄』 권27, 숙종 20년 구월 13일). 당시 숙종은 문수산을 “賊이 만약 먼저 점거한다면 江都는 반드시固守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중단론을 물리치며 공사를 밀어붙였다(『肅宗實錄』 권26, 숙종 20년 정월 6일).

83) 南磯, 『南漢日記』, 226면(한문 원문) “賊舡輕疾如飛, 我之戰舡則難運於退潮之時, 不可專恃舟師, 莫如布陣鎮海樓下狹隘之底, 大張砲矢, 期於血戰.”

84) 南磯, 『南漢日記』, 208-209면(국역).

1637년 2월 16일의 ‘교훈’을 허구적 장치를 빌려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戰後 조선 조정이 강화도 해안의 요해처에 木棚의 설치를 추진한 것도 그날에 얻은 ‘교훈’ 때문일 것이다.⁸⁵⁾ 물론 晚時之歎을 자아낼 따름이지만 말이다.⁸⁶⁾

주제어 : 병자호란, 강화도 함락, 목격담, 염하수로, 조석 추산, 조류 추산

투고일(2017. 10. 12), 심사시작일(2017. 10. 24), 심사완료일(2017. 11. 8)

85) 『仁祖實錄』 권36, 인조 16년 정월 4일. 위의 각주 82)에 소개한 문수산성의 수축 외에도, 숙종 대에 이르러 내·외 성곽의 수축, 연해의 “墩臺 列置”, “해안에서 적군을 막기[臨江禦敵]” 위한 “火砲 및 佛浪機”的 배치 등을 포함한 강화도 수비 강화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肅宗實錄』 권11, 숙종 7년 오월 21일), 이는 모두 병자호란 당시의 ‘교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에 보이는 강화도 연해의 성곽과 문수산성 등은 이러한 수비 강화책이 실천된 결과의 반영이다. 한편 18세기에 구축된 강화도 수비체계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이민웅, 앞의 논문 참조.

86) 더욱 안타깝게도, 뜻밖의 사태에 대비하여 강화도 해변 여러 곳에 목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일찍이 광해군 대에도 제기된 바 있다. 『光海君日記(正草本)』 권80, 광해군 6년 칠월 11일 참조.

〈Abstract〉

A Study of the Qing Military Operation on Ganghwado Island in 1637 – The Reanalysis of Historical Records Using Tide and Tidal Currents Estimation –

Koo, Bumjin *

On 16 February 1637, Qing's infantry detachment succeeded in their landing operation on Ganghwado Island. According to the conventional narrative, only a few Joseon warships bravely fought, but failed to deter the enemy from crossing the shallow, narrow Yeomha Waterway, while Joseon's main fleet, which had been approaching the Qing troops' crossing site from the south along the waterway, was scared by the Qing military power and cowardly ran away. A closer analysis of historical records, especially firsthand accounts, however, reveals that there happened no naval battle: Joseon's naval fleets, both from the south and north, failed to arrive at the area where the Qing ferryboats were crossing the waterway. Hence, the Qing troops crossed the waterway without any resistance.

Then, why did Joseon fleets, especially the main one coming from the south, failed to arrive at the site of waterway-crossing operation? It is noteworthy that the presence and timing of strong tidal currents was singled out as the most crucial obstacle to the movement of the fleet from the south in Joseon's eyewitness accounts as well as other historical records. This paper utilizes a scientific estimation of tides and tidal currents on the day in order to verify how accurate the historical accounts on Joseon side were on the one hand, and to build a new basis for a detailed reconstruction of the military event on the other hand.

The estimation results in general, and the timing of the hindcast high tide and slack water period (around 10:30 am) in particular, are in full accord with the Joseon's witness accounts, giving credence to these historical records. A detailed reconstruction of the event on the basis of the estimation results and the historical accounts shows that

* Professor, Department of Asi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twenty-seven warships of Joseon's main fleet were trapped in a predicament: before the high tide and slack water period, they had no choice but to stand by away from the crossing point so long as their enemy boats were staying ashore; at the very moment the Qing ferryboats embarked on their punting movement around 11:00~11:30 am, Joseon's main fleet could not proceed toward the north because of the tidal currents flowing southward, making seawater shallower and shallower after the high tide and slack water period. Meanwhile, Joseon's other fleet of seven warships to the north, defeated beforehand by Qing's 'red barbarian cannon' fires, could not dare to advance southward.

Key Words : 1637 Qing invasion of Joseon, Fall of Ganghwa Island, Firsthand accounts, Yeomha Waterway, Paleo-tides, Paleo-tidal currents